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교황 “코로나19 인도적 지원 우선, 분쟁 중단해야”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이 멈추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자 전 세계 분쟁 당사자들에 교전을 중단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교황은 지난 19일 주일 삼종기도 훈화에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지속하는 지금,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면서 “특히 분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또 분쟁지역을 향해 “최근 채택된 유엔 결의에 따라 필요한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전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황은 아울러 얼마전 불거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무력 충돌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사회가 조속히 중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오랜 적대 관계에 있는 두 나라는 휴전 협약을 깨고 지난 12일부터 국경 부근에서 교전을 시작해 현재까지 민간인을 포함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일 전 세계적인 무력분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프랑스와 튀니지가 초안을 쓴 이 결의는 코로나19에 따른 인도주의적 원조를 위해 모든 분쟁 당사자에게 최소 90일간 휴전할 것을 요구한다.

교황은 지난 5일 주일 삼종기도에서 이를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결의가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위한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풍랑 (마태복음 14장 22-32절)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선지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이동하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앗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다시스로(스페인) 도망하던 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의 원인 불순종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불순종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풍랑을 만났는지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났는지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풍랑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살다보면 우리에게 크든 작든 풍랑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풍랑이 있는가하면 불순종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무리를 떠나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 잘 아십니다. 크고 작은 풍랑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을 보시고 친히 산위에서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하러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 근심과 슬픔에 잠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 15:5) 약속해 주셨습니다.

집을 떠나 광야의 먼 길을 향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그네 된 야곱에게 하나님은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43:2에서 하나님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이 건널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풍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몰아치는 풍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풍랑을 주실까요? 때로는 풍랑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느껴 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문제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넘실대는 바다를 걸어올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억의 사람이 살았지만 물위를 걷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풍랑 때문에 베드로는 물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세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의심하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다음 성경구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 (30-31)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도 ‘즉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람아 잔잔하라! 할 때 바람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때문에 요나는 다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순종해서 풍랑을 만나든,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나든 예수님은 풍랑을 통해 유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롬8:28) 것입니다.

-강용규 목사-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